

КСІ

漆室 李德一의 <憂國歌> 28장에 나타난 憂國의 양상*

趙泰晟**

<차 례>

- I. 서언
- II. 당대 작품에 나타난 憂國의 양상
- III. 漆室 <憂國歌>에 나타난 憂國의 양상
 - 1. '傷朋黨'으로서의 憂國
 - 2. 忠의 한 방식으로서의 憂國
 - 3. 盡心報國으로서의 憂國
 - 4. 현실적 대안 제시로서의 憂國
- IV. 결어 - 踰실 <우국가>의 시조사적 의의

I. 서언

<憂國歌> 28장은 漆室 李德一¹⁾이 광해군의 혼정을 보고 고향에 돌아와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A020106-AM0003).

** 전남대학교

1) 1561 : 명종 16~1622 : 광해군 14. 함평 출신의 충절인물로, 字는 敬而, 號는 漆室이며, 본관은 함평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열심히 닦아 이름을 떨쳤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의주로 피난길에 올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학문을 그만두고 무예를 닦아 무과에 급제하였다. 그리고 정유재란을 당하여서는 함평민과 피난민들을 모아 의병을 조직하여 함평의 孤山과 東幕 등지에서 왜적을 무찌르며 당시 해전에서 고군분투하던 충무공 이순신을 도왔다.

서 나라의 장래를 근심하며 지은 작품으로, 그 내용은 우국의 정과 아울러 현실에 대한 개탄이 주류를 이룬다. 이덕일의 <우국가>에는 李起渤의 한역 시와 李廷煥(1604~1673)의 화답가인 <悲歌>가 함께 전하는데, 이것은 곧 그의 작품이 당시의 우국지사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우선 조운제와 유창순이 가장 먼저 주목하면서 그 감상을 시도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강전섭²⁾은 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해제와 더불어 작자의 면모까지 고찰하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양순필³⁾, 최한선⁴⁾ 등에 의해 작가와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고, 송종관⁵⁾, 이상원⁶⁾ 등은 조선 중기 시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간략히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시조에 나타난 ‘憂國’ 혹은 ‘忠’을 이야기하는 과정⁷⁾에서 논의되기도 하였으며, 시조의 형식적 미학을 살피는 과정⁸⁾에서도 논의되기도 하였다. 최근에 이르러는 박길남⁹⁾이 <우국가>에 나타난 현실비판의식을 중심으로 세밀한 논의를 펼친 바 있다.

본고는 이렇듯 당시에 널리 유포되었다고 판단되는 이덕일의 <우국가>에서, ‘우국’의 모습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그 양상에 따라 살펴보고, 이어 그러한 ‘우국’의 의미가 오늘날에는 어떠한 가치로 우리에게 다가

이덕일과 이충무공의 인연은 전일 충무공이 함평에 머물렀을 때 당시의 폐단과 군사전략을 지어 바친 것으로 시작되어, 이후 충무공의 신임이 두터웠고, 그의 막하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한 바가 많았다고 한다. 그 후 공은 절충장군이 되고, 곧이어 병조좌랑, 통제영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이후 광해군의 난정이 계속되자 낙향하여 은거하다가 인목대비의 폐출을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고 1622년 병으로 사망하였다(李德一, 『漆室遺稿』).

- 2) 강전섭, 「칠실 이덕일의 <우국가첩>」, 『국어국문학』 31, 국어국문학회, 1966.
- 3) 양순필, 「이덕일론」, 『고시조작가론』, 서울 : 백산출판사, 1986.
- 4) 최한선, 「병란 후의 시대상황과 우국시조」, 『시조학논총』, 한국시조학회, 1996.
- 5) 송종관, 「조선중기시조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 6) 이상원, 「17세기 시조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7) 정재호, 『한국시조문학론』, 서울 : 태학사, 1999.
- 8) 김열규, 「고산작품론 -반복법과 그 연장관계를 중심으로-」, 『고산연구』 창간호, 1987.
- 9) 박길남, 「칠실 이덕일의 <우국가> 28장에 나타난 현실비판의식」, 『시조학논총』 제15집, 한국시조학회, 1999.

설 것인지 논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본 연구의 주 대본은 『漆室遺稿』¹⁰⁾이며, 그밖에 시조 작품에 대해서는 『韓國時調大事典』¹¹⁾을 대본으로 삼았다. 한편, 본고의 논의 중 칠실의 傳記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최한선(1996)에 자세하다.

II. 당대 작품에 나타난 憂國의 양상

현재 전해지는 『漆室遺稿』 내 <우국가> 28장은 각 장마다 제목이 없이 단순히 ‘右第一章, 右第二章……’ 식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林象德의 <憂國歌後叙>나 羅以樟의 <題漆室憂國歌後>¹²⁾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당시까지만 해도 노래의 각 장마다 그 제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이들의 글에서 살필 수 있는 각각의 노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제4장 : 無城歎歌
- 제7장 : 慟哭關山月歌
- 제8장 : 夢聖教歌
- 제9장 : 莫移都歌
- 제10장 : 得民心歌
- 제13장 ~ 제15장 / 제17장 ~ 제22장 : 傷朋黨歌 9장
- 제24장 : 順天命歌

이들 노래의 제목 외에 문헌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머지 노래들에 대해

10) 李德一, 『漆室遺稿』, 漆室李德一將軍記念事業會, 대전 : 譜田出版社, 1985.

본문의 인용은 모두 위의 책에 따름을 미리 밝힌다.

11) 朴乙洙 編著, 『韓國時調大事典』,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92.

12) 이 글들은 모두 『漆室遺稿』에 그 원본과 번역본이 실려 있으며, 이 번역본을 연구의 주된 참고자료로 삼고 인용함을 미리 밝힌다.

서도 분명히 제목이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에 더해 강전섭은 노래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여 누락된 노래의 제목에 대한 재구를 시도한 바 있다. 즉, 나머지 13수에 대하여 제1장은 ‘盡心報國歌’, 제2장은 ‘大駕西巡歌’, 제3장은 ‘報復怨讐歌’, 제5장은 ‘慨嘆人心歌’, 제6장은 ‘艱危國事歌’, 제11장은 ‘均等宣惠歌’, 제12장은 ‘盡心國事歌’, 제16장은 ‘蕩蕩平平歌’, 제23장은 ‘王問有辭歌’, 제25장은 ‘公道是非歌’, 제26장은 ‘不顧國事歌’, 제27장은 ‘金銀玉帛歌’, 마지막으로 제28장은 ‘憂國傷時歌’라고 각각 명명한 것이다.

이렇듯 ‘憂國’이라는 주제 아래 제작된 28수의 노래에 각각 그 제목이 있다는 것은 당대의 ‘우국’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물론 누락된 13수에 대한 제목은 추측에 의한 것이라고는 하나, 노래의 내용과 제작에 사용된 시어에 의해 재구되었으므로 당대의 ‘우국’에 대한 인식을 살피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우선 칠실의 <우국가>가 제작되기 이전에 ‘우국’의 의미가 내포된, 즉 흔히 ‘우국시조’¹³⁾라고 평가되었던 대표적인 시조를 몇 수 통람하면서, 거기에 나타난 우국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은 송강 정철의 시조이다.

어와 버힐시고 落落長松 버힐시고
 저근덧 두던들 棟(東)樑材 되리러니
 어즈버 明堂이 기울거든 므서스로 바티려노¹⁴⁾
 (한국시조대사전 2747)

이 시조는 명종 2년(1547)에 일어났던 良才驛 壁書 事件을 배경으로 하

13) 서원섭(『時調文學研究』, 1979)은 역대 시조 작품에 대해 약 33가지의 주제로 분류한 바 있다. 그 중에 ‘憂國慨世’라는 주제로 107수의 시조를 우국시조로 보았다.

14) 이 시조는 『河西集』續篇 卷首에 <悼土滲寃死作短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어, 하서 김인후의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 그 한역시는 다음과 같다. “昨日伐了木 百尺長松非也歟 若使至今在 可作棟樑材 嗚呼明堂傾矣 于何以支之”.

고 있다. 당시 학문과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며 후에 나라의 棟樑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던 林亨秀가 윤원형에 의해 윤임의 일파로 몰려 죽임을 당하였는데, 이를 지켜보던 송강이 안타까운 마음에 지은 작품이라고 알려져 있다. 송강은 장차 나라를 이끌만한 젊은 동량이 붕당간의 알력으로 희생양이 되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의 나라일을 걱정하는 마음을 이 작품을 통해 드러냈던 것이다. 시조의 행간에서는 직접 읽혀지는 바가 없지만,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곧 ‘朋黨’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폐해로 나라의 젊은 인재가 죽어야 하는 당세를 개탄하는 작품이니, 우국시조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다음은 위의 시조와 거의 동시대에 제작된 張晩¹⁵⁾(1566~1629)의 시조이다.

風波에 놀난 沙工 비파라 말을 사니
 九折 羊腸이 물에서 어려웨라
 이후란 비도 물도 말고 밧갈기를 흐리라
 (한국시조대사전 4436)

이 시조는 우선 뛰어난 은유로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물론 이 작품의 작자가 이러한 탁월한 은유의 기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현실’에 기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 장만은 大北의 亂政을 왕에게 상소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자, 병을 이유로 낙향한다. 이후 인조반정으로 다시

15) 본관은 仁同이고, 자는 好古 호는 洛西이다. 선조 22년(1589년) 생원·진사 양시에 합격하고 1591년에는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성균관·승문원의 벼슬을 거쳐 艮嶽·典牲寺 주부를 역임하였다. 1601년 도승지에 오르고 이듬해 왕후의 誥命奏請부사로, 이어 세자책봉 주청부사로 두 차례 명나라에 다녀왔다. 1627년 정묘호란 때 적을 막지 못한 죄로 관작을 삭탈당하고 扶餘에 유배되었다가 전날에 세운 공으로 용서받고, 복관되었다. 문무를 겸비하고 재량이 뛰어났다. 영의정이 추증되고, 通津의 鄉祠에 배향되었다. 문집에 『洛西集』이 있다.

조정에게 받을 들여 놓았으나 정묘호란 때 적을 막지 못한 죄를 쓰고 귀향을 가기도 하였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장만이 더 이상 조정의 일에 뜻을 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이러한 심사를 시조로 표현해 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면 칠실의 <우국가>가 제작되기 이전의 시조에서는 ‘우국’의 양상이 대개 봉당으로 인한 당쟁에서 비롯된 나라의 어지러움을 개탄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칠실의 ‘傷朋黨歌’類 역시 그러한 면모를 계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칠실의 작품에는 이를 비롯한 우국의 양상이 더욱 복잡해진다. 조선을 변모하게 하는 가장 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병자호란’과 ‘임진·정유 양란’이라는 일대 전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이후 ‘우국’의 양상은 보다 적극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이러한 류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칠실의 <우국가>인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칠실 <우국가>에 나타난 우국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Ⅲ. 漆室 <憂國歌>에 나타난 우국의 양상

1. ‘傷朋黨’으로서의 우국

칠실의 <우국가>에도 이전에 살폈던 시조들처럼 봉당과 당쟁으로 인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드러난 작품이 몇 수 존재한다. 나라의 현실이 편안하고 안정되어 있다면 ‘우국’이라는 말조차도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는 것처럼, ‘우국’은 현실의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칠실의 <우국가> 28장 중 이에 해당하는 작품은 모두 9장이나 된다. 지면상 이들 작품 모두를 살펴볼 수는 없지만 ‘傷朋黨’의 모습이 가장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되는 작품들만을 골라 그 원문을 보고 전체적인 모습을

논하고자 한다.

힘써 흥는 싸흠 나라 爲흥 싸흠인가
옷밥의 못터이서 흥 일 업서 싸오놋다
아마도 근티디 아니흥니 다시 어히흥리(제13장)
辭曰 彼鬪者子爲公乎些 食飽安居無事爾些 嗟嗟乎莫之能止復何爲些

이논 저 외다 흥고 저논 이 외다 흥너
每日의 흥논 일이 이 싸흠 썬이로다
이 흥의 孤立無助는 님이신가 흥노라(제14장)
辭曰 彼烏之雌雄知之些 霄晝所爭惟是焉些 哀哀乎孤立無助莫我君些

칠실이 살았던 시기는 명종, 선조, 광해군대이다. 이 시기는 전란과 더불어 당쟁이 극에 달한 때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시기 칠실의 눈에 비친 당쟁은 쓸데없는 싸움에 불과했다. 이 작품은 임금과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만의 당을 위해 ‘힘써’ 싸우는 그들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다. 또한 그 싸움을 말릴 길 없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스러워 자책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게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서로 옳다 그르다만 하면서 허송세월하는 조정 대신들의 모습을 보며 칠실은 임금을 생각하고 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 보여 고립무원인 임금이 칠실에게는 오히려 당쟁의 희생인 양 여겨지는 것이다.

마를디여 마를디여 이 싸흠 마를디여
尙可 更東西를 생각하야 마를디여
眞實로 말기웃 말면 穆穆濟濟 흥리라(제15장)
辭曰 已而兮已而兮些 彼東兮此西已而兮些 苟能乎已而已而穆穆濟濟些

칠실은 이제 싸움을 그칠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동인이니 서인이니 그런 것들 자체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그

네들이 싸움을 그치기만 한다면 세상은 다시 온화하고 또한 엄숙해질 것이 자명한데, 그렇지 못한 조정의 현실이 안타까운 칠실의 마음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수 더 살펴보도록 한다.

이라 다 울흥며 제라 다 글을라
두 편이 곱트여 이 싸흠 아니마니
聖君이 準則이 되시면 절노 말가 흐노라(제19장)
辭曰 彼一是此一是些 俱日予是曷有已些 聖上兮苟建其極自爾止些

이 사람이 모두 옳고 저 사람이라고 모두 그를 것이냐, 어차피 이 사람이나 저 사람 모두 임금 아래 신하인데 왜 싸움을 그치지 않는지, 당시 당쟁을 보고 작자의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칠실은 또한 단순히 현실을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때 임금이 해야 할 일을 거론한다는 데 노래 제작의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당쟁이 심할 때 성군이라면 마땅히 준칙이 되어 아예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었을 텐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임금이 한스럽기까지 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2. 충의 한 방식으로서의 우국

‘忠’이란 문자가 뜻하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중 중요한 것의 하나는 中心이란 뜻으로 자기의 참된 마음을 뜻한다. 논어에서 ‘吾道一以貫之’를 ‘忠恕’로 표현하고 주자가 충을 註하여 ‘盡己之心謂忠’이라 풀이한 것이 그 예다. 다른 하나는 신하로서 군주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뜻으로 춘추좌씨전에서 ‘公家之利 知無不爲忠也’라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¹⁶⁾

다음 작품을 보자.

16) 정재호, 『한국시조문학론』(서울 : 태학사, 1999), 207쪽. 재인용.

비나하 貢賦 對答 쓸지허 徭役 對答
 옷버슨 赤子들이 비굵과 설위허너
 願컨덴 이 뜻 아랴 宣惠 고로 亨쇼셔(제11장)
 辭曰 女貢絲男貢米些 哀我赤子寒兮饑些 願吾君念茲在茲均宣惠些

칠실은 우선 베를 짜서 賦稅를 내야하고, 쌀을 찢어 徭稅를 내야 하는 등 각종 세금과 착취로 헐벗고 굶주리는 백성들이 매우 서러워하고 있는 실정을 알리려 하고 있다¹⁷⁾.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길 원하는 자신의 마음을 임금께 諫하고 있다. 가난은 임금 혹은 국가가 구제해야 하는 것이며,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직접 말하는 ‘忠諫’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 노래에 담겨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마리쇼셔 마리쇼셔 이 빠흠 마리쇼셔
 至公 無私히 마리쇼셔 마리쇼셔
 眞實로 마리웃 마리시면 蕩蕩平平 亨리이다(제16장)
 辭曰 戒止之戒止之些 至公兮無私戒止之些 能夫戒止戒止蕩蕩平平些

이 작품에서도 역시 칠실은 임금이 지금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다. 여
 기저기서 싸움이 그치지 않는데도 방관만 하는 임금에게 적극적으로 나서

17)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는 그가 올린 <大同江都疏>에도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오늘날의 허다한 貢賦와 徭役을 모두 田結에다 매기니 일 년을 통하여 田畝 一結에서 供納해야 할 것이 쌀로 계산하면 많아서 십여 석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일결의 전답에서 산출되는 곡식이 일결에 대한 각 항목의 부역의 공납에도 부족하게 되니, 여러 고을의 백성들이 끓는 물 속에 있는 것처럼 괴로워합니다. 그리하여 전답을 원수로 생각하고 부역을 괴로운 병처럼 생각하여 시름이 끊이지 않고 집을 떠나 방랑하는 것이 계속되어 田野는 점점 황폐해지고 마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기름을 짜고 살을 깎듯 함과 혹독하게 채족함과 각박하고 독하게 하는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고, 거꾸로 매달린 듯 설자리를 잃음과 추위와 굶주림에 울부짖음과 초췌하고 고생스러운 형편을 또한 形言할 수가 없습니다(……今夫許多貢賦徭役皆責於田結通一年田畝一結之所供而以米計之則多至十有餘石也故一結田畝所出之穀不足以供一結各項賦役刑邑之民如在沸湯中以田畝爲響怨以賦役爲疾苦呻吟不絕流亡相繼田野漸荒閭里稍踈凌膏剝肉斜侵橫斂嚴急刻毒之弊不可勝言……. 李德一, <大同江都疏>, 『漆室遺稿』).

서 말리라고 꾸짖는 것이다. 임금의 직접 나서서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지극히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이 말리기만 한다면 당쟁은 이내 그치고 평온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칠실의 마음이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다음 작품을 보자.

무르쇼셔 술올이다 이 말슴 무르쇼셔
仔詳히 무르시면 歷歷히 술올이다
하늘이 높고 먼 들노 술올 길 업스이다(제23장)
辭曰 王問于茲吾有辭些 苟諄諄問請嘗試些 彼蒼兮既高且遠莫能叫些

이 작품은 바로 앞서의 시조와 함께 살펴보자. 칠실에게는 지금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임금이 너무나 원망스럽다. 조정은 당쟁에 휩싸여 있고, 백성들은 험벗고 굶주리는 이 때 당쟁을 두고 그저 방관만 하는 임금이 너무 원망스러운 것이다. 오죽 했으면 몸소 물어보라고 외치겠는가. 무엇이든 자세히 물어보는 대로 모두 또렷이 대답하겠다고 하겠는가. 한 마디로 이 시조는 임금의 방관을 한하고 탓하며, 그 임금에게 가는 길이 당쟁으로 인해 너무나 높고 멀지만, 자신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설 수 있다는 신념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앞서 살폈던 정철이나 장만 등 기존의 시조들이 현실을 한탄하며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주로 읊었다면 칠실은 그 현실을 직시하고 타과할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대안의 일환이 바로 ‘忠諫’임은 이 작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3. 盡心報國으로서의 우국

칠실의 작품에서 盡心報國의 면모를 보이는 작품은 이십 팔 수 중 거의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가의 위급한 때를 맞아 인심을 개탄하고, 國事를 논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통곡하고, 말리는 것까지 모두 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칠실이 상소했던 <大同江都疏>는 이러한 작품군에 대한 해설서처럼 보일 정도로 칠실의 생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먼저 제목부터 <盡心報國歌>라 칭한 제1장과 <大駕西巡歌>라 칭한 제2장을 연속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學文을 후리티오 反武을 호은 뜻은
三尺劍 들너메오 盡心報國 호려터니
호 일도 호음이 업스니 눈물계워 호노라(제1장)
辭曰 投筆而起此何爲些 提三尺劍報吾君些 吁嗟乎事無所遂不覺淚潛潛些

壬辰年 淸和月の 大駕西巡 호실 날의
郭子儀 李光弼 되오려 盟誓러니
이 몸이 不才론들도 알 니 업서 호노라(제2장)
辭曰 黑龍之暑王在野些 慕昔賢忠矢不移些 噫呼乎才非可用國無人我知些

이 작품들은 칠실이 임진왜란 때 선조의 의주 몽진 소식을 듣고 비분강개했던 당시의 심정을 노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林象德의 <李漆室憂國歌後叙>¹⁸⁾에도 당시 칠실의 심정을 잘 드러나 있다. 문관으로서 출세를 버리고, 나라의 위기에 처해 과감히 무관의 길을 택한 칠실의 의기가 돋보이는 작품이기도 하려니와, 국가의 간난을 모른 채 하지 않으려는 칠실의 결기가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하다. 게다가 ‘그의 뜻은 무과에 급제한 뒤 당나라 때 곽자의나 이광필 등이 安史義 난(安史義 : 安史의, 필자 주)

18) 일찍이 선비의 業을 하여 문장으로도 이름을 낼 만했으나 만력 임진년에 입금이 서쪽으로 행차하시고 팔도에 싸움이 벌어지자 탄식하며 “나라의 치욕이 이와 같으니 남아라면 살아서는 칼로 풍신수길의 목을 베고 죽을 때는 마땅히 군사의 대오에서 죽어가야 하는 것이니, 어찌 글 짓는 일이나 하고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리고서 이 때에 지난 날 공부하던 詩文을 모두 버리고 낮에는 말을 달려 갈쓰기를 시험하고, 밤에는 돌아와 병서를 골똘히 읽었다(……嘗爲士子業能以文翰自名及萬曆壬辰主上西幸兵戈遍于八路乃喟曰國之羞辱如此男兒生不劍劍斬平秀吉死當橫屍行陳何以文墨爲於是盡棄他日所爲詩文書則馳馬試劍夜歸究觀兵書……. 林象德, <李漆室憂國歌後叙>, 『漆室遺稿』).

을 평정하였던 것처럼 용맹을 떨치려고 하였으나 修己기 未完인 까닭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한탄 등이 드러
나지 않은 것은 남이 알아주지 못한 까닭을 修己의 미완에 두고 있음¹⁹⁾
이며, 그러한 이유로 나라를 위하는 칠실의 진심이 이 작품에 그대로 나타
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칠실의 뜻은 진정으로 국가의 위기를 극
복하려는 여러 방안을 내세우고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실행되었다는 점에
서 더욱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은 國事와 관련한 칠실의 생각이 담겨진 작품들이다.

어와 설운디오 싱각거든 설운디오
國家 艱危를 알 니 업서 설운디오
아모나 이 艱危 알아 九重天의 슬오쇼셔(제6장)
辭曰 心之悲矣思之愈悲些 國家艱危知無人些 夫孰能知此艱危奏吾君些

功名과 富貴란 餘事로 하여두고
廊廟上 大臣네 盡心國事 하시거나
이렁성 저렁성하다가 내중 어히 흐실고(제12장)
辭曰 貴莫要名貴營些 惟我縉紳勤于邦些 吁嗟兮悠悠泛終奈何些

나라히 굿드면 딛이조차 구드리라
딛만 도라보고 나라일 아니흐니
흐다가 明堂이 기울면 어니 딛이 굿들이요(제26장)
辭曰 邦之固矣家以安些 不顧于國彼何爲些 倘使夫大厦既傾終無奈些

우선 첫 번째 작품에서는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면서도 그 위태로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서러운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나 위
정자들이라면 더욱 그러한 艱危를 알아 대처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
는 위정자들의 행태에 칠실 자신이라도 직접 임금께 알리고자 하는 바람

19) 최한선, 앞의 논문, 70쪽.

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작품은 국사를 위해서라면 공명과 부귀도 모두 짓혀 두고 조정에서 힘써 나랏일을 보살피야 함에도 아무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조정 대신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작품 한 수만을 놓고 본다면 단순히 초야에 묻힌 선비가 조정 대신의 정치에 대하여 불만을 표출하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칠실의 <우국가>가 제작된 시기와 관련지어 생각한다면 여기에 보이는 조정 대신에 대한 불만은 국사의 흐트러짐으로 이어져 국가의 간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국 의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위에 든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을 보면 이와 같은 우국 의식은 더욱 극명해진다. <不顧國事歌>라 불리는 작품으로, 나라가 굳세면 그대들, 즉 대신들의 집도 굳세질 것인데,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자신들의 집만 돌아보며 나랏일은 하지 않는 대신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상황이 표현된 작품이다. 明堂 즉, 나라가 기울면 어느 집이 남아 있겠는가 하는 따끔한 충고를 작품에 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우국가> 28장 중 가장 마지막 작품으로, <憂國傷時歌>라고 불리는 작품이다.

功名을 願찬커든 富貴인들 비알소냐
 一間 茅屋의 苦楚히 혼자 안자
 밤낮의 憂國傷時를 못내 설워호노라(제28장)
 辭曰 富貴非願功名難期些 感時撫事增余悲些 嗚呼兮歌已至此于以洩平生不平思些

칠실은 공명도 원한 적 없고 부귀도 바란 적이 없었다고 토로한다. 오직 혼자 앉아 있을 때면 밤낮으로 괴로이 나랏일만을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나랏일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두 번에 걸친 병란과 여전히 극성하는 당쟁이 칠실의 우국상시를 지속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 작품의 등장인 ‘一間 茅屋의 棼楚히 혼자 안자’라는 구절은 칠실의 시조가 오늘날 시조사에 커다란 가치를 갖게 하는 실마리가 된다. 이 구절은 흔히 ‘江湖歌道’로 대변되는 조선 중기의 시조 작품에서 비교적 쉽게 찾아지는 구절이다. ‘江湖歌道’를 추구하는 삶을 노래한 작품들에서 ‘一間 茅屋’은 隱逸者의 처소로써 아주 맞춤형에 비유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길남²⁰⁾의 논의가 매우 자세한 편이다. 그에 의하면 ‘<우국가>의 경우는 강호계열의 시조처럼 현실에서 갈등은 겪지만, 강호계열처럼 회피하지 않고, 갈등요소를 들추어내고 맞선다는 데 차별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갈등 대상과 주체에서 또 다른 차별성이 보이는, 강호계열은 작가들 그 개인과 정치현실과의 갈등이지만, <우국가>의 경우는 표피적으로 칠실 개인으로 드러나지만, 심층적으로 혈벗은 赤子이고, 배를 굶는 백성들이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칠실의 <우국가>가 가지는 시조사적 의의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4. 현실적 대안 제시로서의 우국

이 절에서는 현실적 대안으로서 칠실이 제시한 방안 등을 노래한 작품들을 살펴보겠다. 林象德도 이에 대해 ‘莫移都, 無城歎, 得民心, 順天命 등의 장은 채택하여 시행한다면 세상을 다스릴 격언이 된²¹⁾’다고 평한 작품들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노래의 순서에 따라 <無城歎歌>, <莫移都歌>, <得民心歌>, <順天命歌>라 불리는 작품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城 잇사되 막으랴 네와도 홀 일 업다
三百二十洲의 엇디 엇디 덕길게오
아모리 蠱臣精卒인들 의거 업시 어이흐리(제4장)

20) 박길남, 앞의 논문, 196쪽.

21) ……其中莫移都無城歎得民心順天命等章採而陳之經世之格言……(林象德, 앞의 글, 앞의 책.).

辭曰城不高何以禦敵些大都分名洲蹂而躍些縱有夫蓋臣精卒無奈于國些

마르쇼서 마르쇼서 移都 뜻 마르쇼서
一百 積 勸호여도 마르쇼서 마르쇼서
享千年 不拔鞏基를 더져 어히 호시릿가(제9장)
辭曰莫移都莫移都些邇言兮不可信莫移都些享千年不拔鞏基不可等擲些

마르쇼서 마르쇼서 하 疑心 마르쇼서
得民心外에는 호을 일 업느이다
享千年 夢中傳教는 귀예 錚錚호여이다(제10장)
辭曰莫疑心莫疑心些民心兮不可失莫疑心些享千年夢中傳教不可忘忽些

我聖祖 積德으로 餘慶千世 호옵시니
先王도 效則호샤 順天命 호시니다
聖主는 이 뜻 알랴샤 千萬疑心 말르쇼서(제24장)
辭曰聖祖懋德積餘慶些先王是則順天命些聖上兮其鑑于茲不愆忘些

우선 위에 든 첫 번째 작품은 성이 있어도 적을 막지 못할 상황인데, 성도 없이 어찌 적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한탄하며 지은 노래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성이 없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닌 전국 방방곡곡의 상황이 모두 똑같으니 그야말로 蠱臣精卒이라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칠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방어적으로나마 우선 성을 만들어 지키자는 계책을 노래하고 있음이다. 이러한 계책에 대해서는 그가 올린 <大同江都疏>에도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다.

신이 올린 경술년 상소 중에 팔도에서 형세를 가려서 옮겨할 수 있는 곳을 혹 2~3읍을 합하여 한 성으로 만들고, 혹 4~5읍을 합하여 한 성으로 만들어 한결같이 변방을 진압하고 일례적으로 모두 첨사와 만호를 두어 평상시 적주하며 수비하게 하고, 변을 만나면 모든 읍의 사람이 가족을 거느리고 재물을 거두어 각기 소속 산성으로 들어가 땅을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²²⁾

계속해서 이어지는 노래는 지세의 험함만을 믿고 함부로 천도할 생각을 한다거나, 민생을 소홀히 하여 민심을 잃게 하는 등의 일들을 하지 말라고 제안한다. 그러면서 성조인 이태조의 몽중전교에 따라, 즉 하늘의 명을 따르면 굳건한 나라를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래의 내용 역시 <大同江都疏>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앞에서 말했던 쌀과 포를 거두는 것은 바로 민심을 얻을 급선무이며 뒤에서 말했던 형세를 가려서 응거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국가의 터전을 굳건하게 하는 원대한 계획입니다. 민심을 얻음은 인화를 말하니 본이며 나라의 터를 견고하게 함은 지리를 말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본이 있고 말이 없으면 수비가 견고하지 못할 것이며 말이 있고 본이 없다면 지켜도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본과 말을 함께 들어 국가의 기틀이 다시는 뽑히지 않을 곳에 올려놓기를 오늘날 간절히 바랍니다.²³⁾

이상의 작품들을 종합해 보면, 칠실은 당세에 대한 현실적 대안에 대해 이미 상소문을 통해 여러 차례 건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와 현실이 극심한 괴리를 보였던 광해군대에 낙향하게 되면서, 그의 정치 생활을 끝을 맺는다.

칠실 <우국가> 28장은 바로 이러한 시점에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각종 상소를 통하여 자신의 계책을 알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우국’을 노래로나마 풀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위의 작품들과 작품의 제작 동기에서도 확인되듯이 칠실의 ‘우국’은 단순한 울분과 비분강개함의 표출이 아님은 이제 분명하다고 하겠다.

22) ……臣於庚戌年上疏中以爲於八道擇諸刑勢可據之地或合二三邑而作一城或合四五邑而作一城一如邊鎮例皆置僉使萬戶平居以守之臨變則列邑之人率家屬收財物各入所屬山城以守內地也……(李德一, 앞의 글, 앞의 책).

23) ……前所謂米布之收卽得民心之急務也後所謂形勢之據乃固邦基之遠謀也得民心者人和之謂本也固邦基者之利之謂末也有本無末則守不固矣有末無本則守不久矣本末兼舉奠基業於不拔深有望於今日也……(李德一, 위의 글, 위의 책).

IV. 결어 - 칠실 <우국가>의 시조사적 의의

지금까지 칠실의 <우국가> 28장을 살펴보면 우선 그의 시조에 나타난 우국의 양상이 매우 다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 양상을 크게 네 가지로 보았는데, 첫째, ‘傷朋黨으로서의 우국’, 둘째, ‘忠의 한 방식으로서의 우국’, 셋째, ‘盡心報國으로서의 우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 대안 제시로서의 우국’이 그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칠실이 처했던 시기, 그리고 병란을 맞이하여 그에 대처했던 행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칠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시기는 선조대에서 광해군대까지이다. 이 시기는 당쟁이 극에 달했던 때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당쟁으로 인해 피폐해져 가는 나라일에 대한 걱정이 그의 노래로 표현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병란을 맞이해서는 몸소 의병을 모집해 저항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나라의 기틀을 더욱 다지기 위한 각종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 역시도 모두 그의 노래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앞서의 진술들에서 확인한 바 있다.

게다가 칠실은 이전 시기에는 보이지 않던 현실에 대한 적극적 비판과 忠諫, 대안의 제시 등을 시조라는 형식을 통하여 내보임으로써 우리 시조사에 있어서도 그 내용적 영역을 넓히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전 시기까지 주로 제작되었던 ‘江湖歌道’와 ‘訓民’, ‘修己와 德治’의 기초에서 벗어나, 한 걸음 더 진보된 기초-박길남(1999)에 의하면 ‘회피하지 않고 맞서는’-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칠실 <우국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까닭이다.

칠실의 시조는 후대에까지 우국의 절창으로 평가되어 수많은 지식인들이 돌려 읽으며 눈물 흘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당대 가장 가까이 있는 松岩 李廷煥의 우국시조²⁴⁾로 그 전통이 이어지며, 후대에 이르러는 일

24) 이거사 어린 거사 잡말 마라스라 / 漆室의 悲歌를 杼라서 슬퍼하리 / 어디서 濁酒 한 잔

제 강점기를 당하여 대구여사의 <血竹歌>를 비롯한 작자미상의 <愛國調>, <丈夫詞> 등으로 그 전통이 이어진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우국가>의 가치는 외세와 일제의 침략에 맞서 문화운동으로 다가섰던 시조부흥운동과 그 과정에서 실린 여러 우국·독립 시조로 그 전통이 이어진다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흔히 우리의 시조 장르는 서정문학의 진수라고 일컫는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칠실의 <우국가>에 나타난 제 양상들은 이러한 기존의 견해에 재고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칠실 우국시의 전통이 개화기 이후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 점에 대한 연구 역시 재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국’은 언제나 현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漆室遺稿』, 漆室李德一將軍記念事業會, 대전 : 譜田出版社, 1985.

朴乙洙 編著, 『韓國時調大事典』, 서울 : 亞細亞文化社, 1992.

서원섭, 『時調文學研究』, 서울 : 형설출판사, 1979.

정재호, 『한국시조문학론』, 서울 : 태학사, 1999.

강전섭, 「칠실 이덕일의 <우국가첩>」, 『국어국문학』 31, 국어국문학회, 1966.

김열규, 「고산작품론 -반복법과 그 연장관계를 중심으로-」, 『고산연구』 창간호, 1987.

박길남, 「칠실 이덕일의 <우국가> 28장에 나타난 현실비판의식」, 『시조학논총』 제15집, 한국시조학회, 1999.

송종관, 「조선중기시조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6.

양순필, 「이덕일론」, 『고시조작가론』, 서울 : 백산출판사, 1986.

언어 이 실람 풀가 하노라 寄語癡孩者 慎莫且多談 漆室悲歌意 不知悼者誰 須把一盃酒 聊以解窮愁(自譯)(한국시조대사전 3212)<悲歌> 10수 중 열 번째 노래.

이상원, 「17세기 시조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최한선, 「병란 후의 시대상황과 우국시조」, 『시조학논총』, 한국시조학회, 1996.

<투고일 : 2006. 6. 10.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K C I

<Abstract>

A Study on aspects of Wooguk[憂國] in Chilsil's works
named <woogukga[憂國歌]>

Jo, Tae-seong

This study aims to make sure that Wookuk[憂國] in Chilsil[漆室]'s works has many kinds of aspects. Broadly speaking, it is divided four aspects. Wooguk[憂國] as a Sanbungdang[傷朋黨] is in the first place. Secondly, we can see Wooguk[憂國] as a kind of loyalty[忠]. Wooguk[憂國] as Jinsimboguk[盡心輔國] is next. The last aspect is Wooguk[憂國] as an alternative propose in the actual. These various aspects are caused by Chilsil's period, wars and acts which was facing with wars.

More than that, the tradition of Wooguk-Sijo[憂國時調] is from Lee, Jeong-hwan's to Madam Daegu's <Hyeoljukga[血竹歌]> and anonymous <Aegukjo[愛國調]>, <Janbusa[丈夫詞]>, etc.

Keywords : Wookuk[憂國], Chilsil[漆室], Sanbungdang[傷朋黨], Jinsimboguk
[盡心輔國], loyalty[忠], Wooguk-Sijo[憂國時調]